

## 로버트 바노이 , 대선지자, 강의 13

진정성 주장, 주요 주제

신명기 - 이사야 논증 및 응답 검토

일주일 전에 우리는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진위성과 저자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꽤 표준적인 비판적 견해는 그 장이 이사야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 말기의 작가가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백업하자면 검토를 통해 인수는 기본적으로 3개로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의 두 번째 섹션에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가 책의 첫 번째 섹션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두 번째 부분의 언어와 스타일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추론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이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장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적 배경에 따른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역사적 배경은 첫 번째 부분과 확연히 다르다. 추방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고와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배 생활에서 탁월한 석방을 바라보는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역사적 배경 문제가 중요한 논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과 관련된 진정한 예측과 신성한 계시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빌론 유배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자료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결론에 거의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묘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인간의 수단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사야서 40-66장과 이사야서의 동시대 청중에 대한 관련성 [심판/포로 → 위로]

그러나 그 주장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동시대 청중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되며, 우리는 그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주장은 선지자들이 항상 동시대 사람들에게 관련성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66장은 이사야 시대의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토록 장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 끝에 나는 이사야의 사역의 대부분이 일어난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이사야 1:1에서 이사야가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므낫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의 서론을 논의했을 때를 기억한다면, 그 책은 산헤립에 관해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산헤립이 죽은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사야서의 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까지 예언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에 행한 일이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사역에서 그 땅의 경건한 사람들,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의 죄 상태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적인 사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의 통치에 이르자 그 나라는 끔찍한 배도에 빠졌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남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인 므낫세 치하의 당시의 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에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의 부하들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속에 숨었고, 그 나무는 둘로 잘렸습니다. 앞서 이사야가 둘로 잘렸다고 언급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톱으로 톱질을 당했다고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 환상을 봅니다. 선한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그 나라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포로 생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이사야에게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다면 더 이상 책망과 정죄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추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끔찍한 배도와 박해의 시대 속에서 이사야를 따르고 있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사람들은 유배자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그것이 나라의 종말이 될지 궁금해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 그게 끝일까요?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의 틀은 그러한 포로 생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틀과 매우 유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추방당했습니다. 그들도 궁금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들은 절망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참된 위로를 줄 것이며, 실제로 포로 생활을 경험한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유배 생활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 시대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36-39장 히스기야와 므로닥 바빌론의

발라단      또 다른 설명: 역사적 자료의 구분 부분인 36장부터 39장은 이전 예언인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를 나누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 부분은 유다 백성 이 바빌론으로 유배됩니다. 3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짧은 장인데, 바벨론 왕 발라 단의 아들 므로 닥발라단이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유다의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39장 3절을 읽어 보십시오.

“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어디서 왔느냐.” 히스기야는 ‘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 그들은 바빌론에서 나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는 ‘ 그들이 당신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 그들은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 내 보물 중에는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날이 반드시 이르리니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네 자손 중 네게서

태어날 네 살과 피가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당신이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평생에 평안과 안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느니라.” 흥미로운 점은 히스기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주요 강국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도시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생애에 관한 사건인 36장부터 39장까지의 자료 배열에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그 부분의 끝에 배치됩니다. 즉,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과 구원을 말하는 40장 이하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연대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36~39장의 다른 사건들보다 앞선 것일지라도 이 사건은 역사적 부분(36~39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기에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므로 닥발라단의 방문이 그의 생애 말기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겠지만, 연대순이 아닌 논리적인 이유로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음의 위로의 말에 대한 소개를 구성하기 위해 논리적인 이유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생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포로 생활이 다가올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후에 포로 생활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빌론 유배(아시리아 아님)에 대한 미가의 예언 이사야는 앗시리아가 아닌 바빌론 유배의 도래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미가도 그렇게 합니다 .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4:10; 미가는 “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에 몸부림할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을 떠나 들판에 진을 쳐야 하리라” 고 말합니다.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실 것이라 ” 그래서 미가도 바벨론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비록 이사야의 생애보다 100년 이상 뒤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동시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므낫세가 BC 686-642년에 통치했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BC 681년 산헤립의 죽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사야의 사역이 얼마나 멀리까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산헤립의 죽음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681년입니다. 37장. 그러므로 그것은 확실히 681년을 넘어섰습니다. 키루스의 연대는 기원전 539년에서 530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약 150년 후입니다. 이제, 비평가들의 이러한 기본 주장은 저자의 다양성을 증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논증      그러면 질문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빙성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와 그의 저자, 또는 이 자료의 신빙성을 유지해야 하는 몇 가지 강력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1. 그 책이 현재의 통합된 형태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다는 원고 증거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현재의 통일된 형태 외에는 존재했다는 원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된 단위로서의 제2이사야서 사본은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전체의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의 책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해 두루마리 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입니다. 칠십인역을 보면 똑같습니다. 70인역 사본은 이사야서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전체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250-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사본 증거에 따르면 이 책의 통일성을 확실히 뒷받침합니다.

## 2. 신약의 증거는 분명히 이사야의 저자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요소는 당신이 성경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는 분명히 이사야의 저자임을 나타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사야의 이름이 신약성서에서 21번이나 인용되었는데, 이는 꽤 많은 횟수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인용문은 책의 두 섹션에서 나왔습니다. 즉 1부터 39까지, 40부터 66까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38-40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믿으셨으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느니라.' ” 이제 인용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두 번째는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둘 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었으며, 하나는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의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함이라” 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책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모두 이사야 자신이 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예수님)에게 건네주매. 그것을 풀어 보니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이다.

사도행전 8장 30절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곳입니다. “빌립은 수레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합니까?' 필립이 물었다. '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는 ' 누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 한' 이라고 말했다

. 그래서 그는 빌립을 초대하여 올라와 함께 앉았습니다. 내시는 ' 그가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 장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성서의 증언에 있는 사본의 증거가 우리가 이 책 전체를 이사야서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사야서 의 곱셈

이사야서를 첫 번째 이사야와 두 번째 이사야로 나누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이 더 나아가 세 번째 이사야를 생산합니다. 이들 비평 학자 중 일부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사야가 있고, 일부에는 최대 12명의 이사야가 있습니다 . 그것은 다시금 언어와 문체를 분리하는 그런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휘나 스타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장이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것은 Deutero 이사야이지만, Trito 이사야 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이사야 세 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으며 , 이사야 12장과 13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예도 있습니다.

## 요시야의 종교 개혁

좋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항상 예레미야서 구절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곳은 도공과 점토에 삽화가 사용된 구절이다. 예레미야 18장 8절은 “만일 내가 심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뉘우치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9장의 끝 부분에 포로 생활에 대한 진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르나세에서 떠날 때 악한 아몬을 갖게 될 때 예레미야 18:8이 그 문맥에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몬 다음에는 요시야가 있습니다. 경건한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와 같은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이 개혁이 포로생활을 되돌릴 만큼 충분할 것인가? 이제 그들은 심판 대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러나 열왕기에는 요시야 시대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몇 가지 명시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십시오. 그 장의 앞부분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왕이 백성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더니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도 이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라” 고 했습니다. .” 24절 “ 요시야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그 밖에  
가증한 것을 다 쫓아냈느니라 . 이는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

그러나 열왕기하 23:26을 보십시오. 요시야 시대에 얼마나 큰 개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유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6절: “ 므낫세가 유다를 격노하게 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그 맹렬한 진노의 열기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니라  
. ” ’ ” 그래서 제가 보기에 는 그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판결은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B. 주제가 앞뒤로 움직이는 이사야 40-66장의 교향곡 구조 개요에서 B.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0-66장에는 “교향악 구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몇 년 전 일부 강의에서 Mac  
Rae 박사가 처음 제안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되는 점은  
이사야 40-66장이 공식적인 연설이나 역사 논문처럼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석하기가 매우 복잡 하고 어려운 문학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맥레이가 제안한 것은 문학적 스타일을 교향곡 작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읽어 보면 그 내용이 논리적인 토론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료의 구조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 또 다른 주제로 이동하며 때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매우 갑작스럽습니다. 때로는 다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직접적인 논리적 연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앞뒤로 이동하면 MacRae는 구조가 비참하고 망명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에 호소하는 구조라고 느끼고 다양한 주제가 상호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한동안 하나의 주제를 소개한 다음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세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로 돌아가서 네 번째를 얻고 세 번째로 다시 돌아오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MacRae 박사와 함께한 과정에서 이사야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할 시간이 없어요. 즉, 이사야서를 통해 주제를 도표화하는 것입니다. 색상을 지정하고 여섯 가지 테마와 여섯 가지 색상이 있고 이동하면서 색상 코드를 지정하면 테마를 식별할 수 있고 페이지를 한눈에 구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다른 테마로.

인용문의 28, 29페이지를 보십시오. Whybray , 1983. Whybray 아래의

두 번째 두 문단은 그의 책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주제의 일관된 배열이 있습니까? 그는 제2이사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이드북 제목이에요.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학자들 사이의 합의가 부족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시사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Bullwinkle은 논리적 배열 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기계적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사가 표어의 원칙에 따라 편집적으로 배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절들이 병치된 것은 본질적인 일치나 의미의 연속성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언어적 연결이 둘 다에서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45:20-25과 46:1-4에 나오는 “끓어 절하다”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미묘한 신학적 요점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두 구절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집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점에서는 주제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Bullwinkle의 책에 있는 모든 구절 사이의 기계적 연결이 매우 강제적이어서 확신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논리적이고 주제적인 구조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소위 종의 시편이라 불리는 네 편의 시편(42:1-4, 49:1-6, 50:4-9, 53:1-12)과 같이 주제별로 명확하게 연결된 부분 또는 페리코페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책! Whybray 는 “명확한 이유 없이, 문맥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순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대 독자로서는 경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 배열은 없습니다. 음악적 구성과 비슷 합니다 . MacRae가 말했듯 이 논리적 배열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영향이나 인상을 주는 음악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감정적 주제를 산재시키는 종류에 가깝습니다 . 당신은 음악 작품을 듣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음악과 함께 할 수 있고, 음악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음악가가 아닌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물을 인식합니다. 당신은 테마의 반복을 인식합니다 . 메모로 이동한 다음 첫 번째 메모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MacRae가 사용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

이사야 40-66장의 주요 주제

이제 MacRae를 통해 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테마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주요 주제의 범주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 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편안함

첫째는 위로이고, 그 밑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의 유배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라는 주제 아래서, 비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은 특히 유배로부터의 구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편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창조력, 그분의 역사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게 될까요?” 글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는 존재합니다. 둘째, 그는 땅 끝의 창조자이시며, 셋째,

역사 전체를 다스리신다. 모든 국가, 지도자, 통치자는 그의 권력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은 바벨론의 우상과 이교 신들의 약점과 대조됩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주요 주제인 또 다른 주제로 이어집니다.

### 3. 우상숭배의 무익함

세 번째: 우상 숭배의 무익함. 대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 세력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신전을 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봅니다. 그들은 종교 행렬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야훼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일반적인 개념은 전투에서 승리한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무익함이라는 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야 가 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의 주제로 돌아갈 것인가, 우상의 무익함으로 돌아올 것인가, 주제는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40:19와 20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보십시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금장색은 금을 입힌 다음 은사슬을 만듭니다. 너무 가난하여 그러한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 숙련된 장인을 찾는다.” 장인이 만든 나무에 절을 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당신은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강조합니다.

#### 4. 하나님의 전지하심

네 번째로 매우 두드러지는 주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거나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강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강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특별한 증거가 특히 강조되는데,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앗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라고 예언했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 나는 사이러스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지금 사이러스가 현장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노선이 이 책의 강력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5. 주님의 종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다섯 번째 주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련의 구절이 있습니다. Whybray 는 소위 “하인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곡이 명확한 이유 없이 책 전체에 흩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4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에 걸쳐 종의 일에 대한 다른 간략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 네 구절을 들어낸다고 해서 종의 주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평 학자들은 그것이 원래 책에 설정된 일종의 별도의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하인의 구절이 많고, 그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당신은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발전의 절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1-12에서 발견되는 종에 관한 주요 구절 중 네 번째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종이라는 주제는 포로 생활에서 구원이라는 더 큰 강조점과 어떻게 통합됩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내 생각에 우리가 이 문제, 특히 하인 주제를 조금 다루면서 이 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망명은 주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포로 생활은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확실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종은 더 기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다루게 되며, 그것이 종의 주제가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맥락에 통합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비록 포로 생활이 백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포로 생활이 아니라 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5가지 테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사야 40-66장을 통해 상호 교환 가능한 방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주요 것들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향곡, 음악 작곡과의 비유는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C. “40장의 서곡” 을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40장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취합시다. 돌아오면 4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arly Geiman이 대략적으로 편집함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